

연구논문

청년여성의 초기생애과정의 이질성 원인에 대한 연구*

심가은** · 신인철***

생애과정적 접근을 통해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대학-취업이라는 단선적 삶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사회가 기대하는 정형화된 삶에서 벗어나 탈표준화된 자신만의 삶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초기 청년기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지향성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가족배경이나 졸업한 고등학교 등이 청년의 선택지를 제약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약은 청년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청년연구에서 깊이 다루이지 않았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아온 초기생애과정을 유형화하고, 서로 다른 삶의 궤적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초기청년기, 생애과정적 접근, 배열분석, 청년패널조사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석사(gacun_929@daum.net),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조교수(incshin@uos.ac.kr), 교신저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청년기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변해 가는 ‘자아정체성 탐구’의 시기라고도 한다(Arnett 2007). 생애과정 접근에서 볼 때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자아에 대한 탐구는 좁게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넓게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이수용·이은수·홍세희 2016). 하지만,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개인별로 매우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들은 만족할 만한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장기간 준비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까지 몇 번의 이동을 하기도 하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구직을 단념한 채 비경제 활동인구가 되기도 한다(박미희·홍백의 2014). 따라서 청년기 이후의 오늘이 왜 다른 모습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갈림길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선택들로 구성된 삶의 궤적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생애과정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경향들이 강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첫 번째는 기존의 연구들이 ‘남성의 정상적 생애주기’ 접근이 강하다는 것이다(오유진·김교성 2019). 청년층 내 이질성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으로 성별을 들 수 있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별불평등의 문제가 여전히 가정과 노동시장 내에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병훈·김은경·김한나 2023). 두 번째는 학력별 이질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을 정도로 고학력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이 엄연히 존재하여,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삶의 궤적을 밟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함을 전제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사회가 기대하는 노동시장 진입과 결혼·출산으로의 이행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다. 이러한 접근에서 고졸 청년은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오유진·김교성 2019).

이처럼 청년층 내 이질적 삶의 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해 보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여성과 일반계고를 졸업한 청년여성 간에는 또 다

른 삶이 펼쳐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남성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류지은 외(2022)의 연구에서 특성화고 졸업자의 생애경로를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주로 일자리 이동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강순희(2014) 역시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를 분석하였으나, 출신고교별 차이는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청년여성 내 집단별 이질성뿐만 아니라, 각기 살아온 삶의 궤적은 청년여성이 직면해 왔던 과거의 산물이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여도 대학을 선택하는 청년여성들과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을 지속하는 특성화고 청년여성 간에는 가족배경과 같은 불평등적 원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혜숙·민병철 2023). 이에 본 연구는 청년여성에게 초점을 두어 초기청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10여 년간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출신고교에 따른 생애과정의 이질성을 분석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청년기를 아동에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독립하는 성인기로의 이행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정봉 2021). 이러한 비판의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더 이상 청년기가 과거의 규범적이고 표준화된 이행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진학→취업→진학, 비전일제 대학원 진학처럼 서로 겹치고 모호한 단계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변금선·이혜림 2023; Shanahan 2000). 이에 청년기의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ettersten & Ray(2010)는 성별, 인종, 사회계층에 따라 청년기가 이질적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들은 청년기의 삶의 궤적들이 복잡해지는 원인으로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중요성 증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 형성의 지연을 꼽고 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 즉, 대학원까지 학업을 지속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졸업 이후 계속된 취업실패를 경험하면서 실업이나 ‘쉬었음’ 상

태를 경험하는 청년도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을 포기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Settersten & Ray(2010)이 지적한 원인은 청년기의 다양한 삶의 궤적을 유형화할 때 사용되는 일련의 기준이기도 하다. 물론 Benson & Elder (2011)의 연구처럼 주관적 나이와 심리사회적 성숙이라는 주관적 특성을 이용하여 유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배열분석이나 잠재집단분석 등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 취업·취업, 결혼 등 청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주로 유형화한다(오유진·김교성 2019; 류지은·김성남·안재영·강서울 2022).

그러나 누구는 학업을 지속하는 삶을 살며, 누구는 일찍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본 연구는 이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제는 청년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청년기와 유사하게 아동과 초기 성인기 사이에 위치하는 청소년기에서 일어나는 이질적 전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들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들은 크게 개인적 차원의 접근과 구조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이론으로 Heckhausen, Wrosch & Schulz(2010)가 제안한 생애 발달 동기이론(motivational theory of lifespan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을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개인이 변화하는 삶의 기회와 제약 속에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며, 때로는 포기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진학, 취업 등과 같은 삶의 다양한 전환점에서 이루어지는 목표선택-목표몰입-목표이탈-새로운 목표 재설정이라는 순환구조 속에서 다양한 통제 전략을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우선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 통제(primary control)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내적 태도나 기대를 조절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2차 통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애과정의 전환점마다 적합한 동기적·행동적 전략을 취하고 그 결과로 이질적인 삶의 궤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청년기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생애과정은 각자의 주체적인 목표 설정하에서 적절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두 명의 청년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청년은 성적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2차 통제 전략인 취업이라는 또 다른 주체적 선택을 하게 되고, B라는 청년은 1차 통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결국 양자의 삶의 궤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적용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장정규·최윤정 2023).

이러한 논의는 교육사회학의 진로발달이론에서 강조해왔던 진로포부와도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진로포부는 개인의 능력, 흥미, 성취동기, 가치 등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형성되며, 미래의 직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임용수 1992). 여기서 진로포부는 넓게는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삶에 대한 이상을 의미하며, 좁게는 미래에 자신이 나아가고자하는 직업적 방향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 희망을 말한다(최재혁·홍혜영 2016). 이러한 진로포부는 가정환경과 유의미한 타인 등 주변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과거 경험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박용두·이기학 2008). 따라서 초기청년기 연구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애발달 동기이론에 따르면 생애과정은 개인 선택의 산물이기에 오롯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에 이르게 되는 사회구조적 제약을 설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Bozick & DeLuca(2005)는 고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을 지연하는 청년을 분석하여 인종적 특성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것들의 영향력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다라도 유사한 결론에 이른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남재욱 2021; 변금선·이혜림 2023). 이처럼 가족배경이라는 개인이 쉽게 넘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DiPrete & Eirich(2006)의 누적적 우위(cumulative advantage) 모형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역시 생애과정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의 핵심적 개념은 경로의존성과 자원의 축적·재생산에 있다. 경로의존성은 특정 시점의 자원 획득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은 다음 시점에도 자원을 더 많이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초기 단계의 작은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자원의 축적·재생산 개념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두 청년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 대학을 포기한 A라는 청년은

공부를 잘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고졸 출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적이기에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 B라는 청년은 넉넉한 가정 형편 덕에 다양한 사교육을 받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여 고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누적적 우위 모형이 성립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Bernardi(2014)가 보상적 우위 모형(compensatory advantage model)에서 경로의존성이 깨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들이 주장한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가정에서는 우월한 자원을 사용하여 자녀가 교육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인 결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로의존성의 원인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족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설명력에 한계는 존재한다. 어찌 되었든지 누적적 우위 이론은 가족배경으로 인해 극복되지 않는 이질적 삶의 격차를 설명함에는 분명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초기청년기의 서로 다른 삶의 궤적에 있어 성별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의 생애과정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삶의 궤적을 따르지 않는 탈표준화 과정(de-standardization processes)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탈표준화 과정은 주로 사회문화적 차이나 코호트의 특수성 측면에서 다뤄져 왔으나, 최근에는 성별의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Widmer & Ritschard 2009). Komp-Leukkunen(2019)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구세대 여성들은 노동연령기(working age)를 가사에 주로 할애했었다. 하지만, 최근 코호트 여성들은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였던 정형화된 삶과는 다른 궤적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논의들이 힘을 얻고 있다(박경숙·김영혜 2003; Heglum 2024).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병훈·김은경·김한나(2023)는 한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안정-취업형, 불안정-취업형, 불안정-시장진입형, 시장이탈-지속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영향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청년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시장이탈-지속형에 빠질 확률이 4.5배~3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이탈-지속형에 해당되는 청년여성이 모두 결혼으로 이행했다는 내용은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청년남성과는 다른 삶의 궤적을 보이며, 그러한 이질성에 있어 가부장적 사회구조나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의 문제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청년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따른 삶의 궤적이 상이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탈표준화 과정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

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생애과정을 유형화하고,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를 들 수 있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차 프로젝트(YP2001)는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기존 패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저연령대 청년 통계를 보완하고, 현 청년 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대표통계를 제공하고자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2차 프로젝트(YP2007)를 구축하여 계속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2). 2007년 당시 만15~29세 청년 10,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해 14차 조사(2020년) 기준 6,905명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어 67.7%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07년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여성이며, 연령의 범위를 20대로 한정하였다. 물론,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34세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는 초기청년기 이행과정의 이질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29세까지로 연령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 관찰시점인 2022년 기준으로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31.3세이기에 30세 이후부터는 또 다른 생애과정이 펼쳐지므로 본 연구의 관심인 가족배경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청년여성은 2007년 조사를 기

준으로 724명이다. 다만 1차 조사 당시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 20세에 진입하는 시점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1차 조사 당시 고3이었던 학생들은 2차부터 11차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고, 고2 학생들은 3차~12차, 고1 학생들은 4차~13차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방법은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이다. 먼저 시간흐름을 전체적인 궤적으로 파악하는 배열분석은 자료의 순서에 주목하는 방법론으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단계별 분석과정에 관심을 두었으나, 긴 궤적을 분리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슷한 배열끼리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을 이용한 거리측정방식이다(Abbott & Tsay 2000). 최적일치법은 배열을 들쭉잡아서 삽입·삭제 또는 대체하여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sequence alignment)에서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배열 간 거리값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거리값 행렬(distance matrix)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사례들을 유형화하는 방법이다(Cornwell, 2015).

우선 배열분석을 위해 고교 졸업 이후 10여 년간의 학업 및 근로상태에 대한 각 연도의 응답을 ‘학업’, ‘근로’, ‘둘 다 하지 않음’ 등 세 가지 상태로 배열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상태값을 결합하기 위해 다중배열분석(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거리값을 산출하였다. 다중배열분석은 고용상태와 주택소유 여부, 혼인 및 자녀조건 등 여러 배열을 결합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Pollock 2007). 각 채널별로 배열들의 거리값을 계산하고 이 거리값들을 평균·합산하여 새로운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후에 앞서 말한 과정을 거쳐 청년여성의 초기청년기를 유형화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상 다항로짓분석 결과는 선택 대안에 속할 확률과 기준 대안에 속할 확률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 ratio)로 보고한다. 다만,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한계확률(average marginal probability)도 함께 제시하였다(Williams 2012).

3. 변수의 선택 및 변환

본 연구에 이용한 분석방법은 배열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이기에 변수군 역시 둘로 나뉜다. 먼저 배열분석에 이용한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배열분석을 위해 ‘재학’과 ‘취업’, 그리고 ‘둘 다 하지 않음’이라는 3개의 상태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유형’에 대한 응답이 전문 대학 이상인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직업코드’를 이용하여 조사 연도 기준으로 해당 문항에 응답을 했으면 ‘노동’ 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두 상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둘 다 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가사노동이나 출산, 육아 등을 하고 있거나, 질병으로 인한 공백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드문 사례여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업’과 ‘노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극히 일부 사례도 있었으나, ‘노동’으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다항로짓모형을 위해 사용한 독립변수들은 기존의 청년 생애주기 변화 연구에서 주목하였던 것들 중 청년패널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로 한정하였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진로포부, 성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교 성적은 청년패널조사에서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 것을 역코딩한 후, 상·중상을 상위권으로, 중하·하를 하위권으로 분류하여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진로포부는 미래의 직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평가되기에(임용수 1992), 본 연구에서는 이를 희망 최종학력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출신 고교 유형은 일반계와 특성화고로 이분화하였다. 출신 고교가 특목고와 자율고인 경우도 있었으나 사례가 너무 적어 별도의 범주로 분류할 경우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계고에 포함시켰다.

가족배경은 노동시장 진입에 요구되는 자격을 성취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적, 비재정적 자원을 제공하여 생애과정 이행 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초기자원이다(변금선 2018).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확률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에 따라 아버지 학력 이외에 중요한 변수로 포함시켰다(김창환 2022). 이러한 부모의 최종학력 모두 학교 교육 연수로 나타내었다. 최종 희망학력은 진로포부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진로 관련 목표와 실현 가능성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것으로(Rothwell, Herbert, & Rothwell 2008), 앞서 논의하였던 생애발달 동기이론과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도 고려하였다. 1인당 가구소득은 연평균 값이며, 가구 총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후 가구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지역은 크게 수도권, 광역시, 그 외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자 일반특성(N=724)

변수명	평균/빈도	표준편차/비율
아버지 최종학력(연)	13.14	2.60
어머니 최종학력(연)	12.26	2.22
1인당 연평균 가구소득(만원)	1,623.82	1,186.84
고교 계열	특성화	134
	일반계	590
고교 성적	하위권	77
	중위권	296
	상위권	351
희망 최종학력	고졸	43
	전문대졸	97
지역	대졸 이상	584
	수도권	340
	광역시	261
	그 외	123

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기술통계량이며, 응답자가 처음에 관찰된 시점의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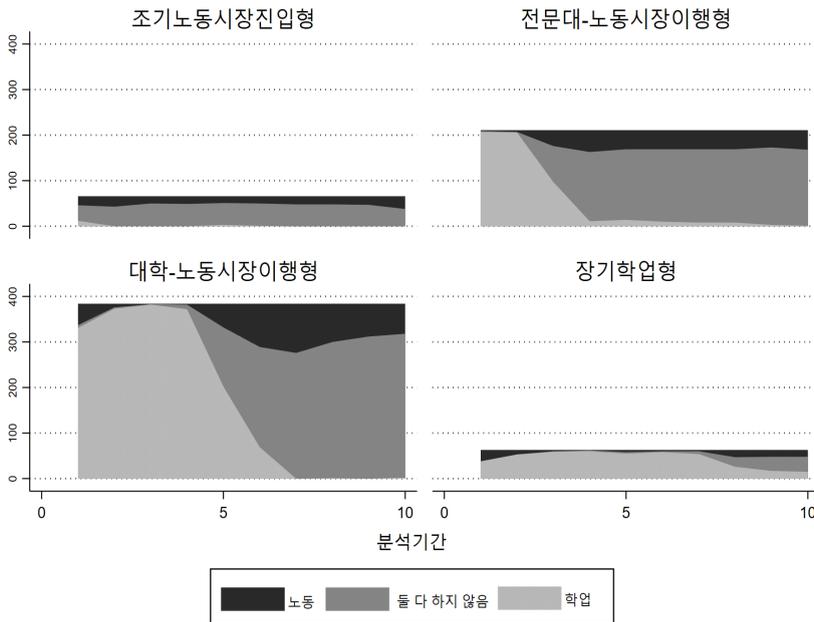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청년 여성의 고교 졸업 이후 생애과정 유형

분석대상자 724명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10년간의 학업 및 노동상태를 기준으로

배열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애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은 ‘조기노동시장진입형’,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 ‘4년제-노동시장이행형’, ‘장기학업형’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유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조기노동시장진입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 유형에 속하는 청년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듬해에 취업한 비율이 51.5%인 반면, 다른 유형에 속한 청년여성은 2%도 되지 않았다.



<그림 1> 청년 여성의 고교 졸업 이후 생애과정 유형 (단위: 사례 수)

다음으로,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은 ‘4년제-노동시장이행형’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은 평균 2~3년의 학업 기간을 거친 후, 상당수가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제 이하 전문대학 학생들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2년 11.9개월이며, 4년제 대학생들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 1.6개월이다. 이를 볼 때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교 졸업 후 3년차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에 속한 청년여성 중 37.4%가 취업한 반면, ‘4년제-노동시장이행형’에 속한 경우에는 2.6%에 그쳤다.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가 ‘4년제-노동시장이행형’에 포함된다.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학업 기간이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휴학을 갖는 경우가 있어 학업 종료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네 유형 중 눈에 띄게 긴 학업 기간을 가진 ‘장기학업형’은 4년제 대학을 아주 늦게 졸업한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학위 과정으로 이행한 경우이다. 모든 유형에서 ‘둘 다 하지 않음’의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혼인으로 이행한 사례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미취업 또는 취업준비 상태에 있는 사례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다항로짓분석결과: 생애과정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배열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애과정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조기노동시장진입형’을 기준으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만 상대적 위험률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한계효과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의 해석도 <표 3>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표 2>에서 상대적 위험률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와는 다르게 가족배경과 관련된 변수에서 청년여성의 초기 생애과정에 있어 가구소득보다는 부모의 최종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최종학력 간에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효과가 반감된 측면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가구소득 격차가 크지 않아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구소득의 효과성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고 이후 다른 조사자료를 통해 재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3> 생애과정유형에 대한 다항로지분분석결과(기준: 조기노동시장진입형)

변수	전문대-노동시장 이행형	대학-노동시장 이행형	장기학업형
	RRR (s.e.)	RRR (s.e.)	RRR (s.e.)
아버지 최종학력	1.342** (0.149)	1.511*** (0.172)	1.549** (0.205)
어머니 최종학력	0.866 (0.102)	0.875 (0.106)	1.124 (0.161)
가구원당 연평균소득	0.945 (0.057)	0.974 (0.061)	1.014 (0.081)
고교 계열(기준=특성화)	5.291 (1.976)	13.207*** (5.311)	34.854*** (28.821)
고교 성적(기준=하위권)			
중위권	2.157 (0.947)	2.331 (1.093)	3.951 (3.056)
상위권	8.949*** (4.819)	16.823*** (9.472)	25.427*** (20.989)
희망 최종학력(기준=고졸)			
전문대졸	13.546*** (7.929)	3.274 (2.149)	0.000 (0.003)
대졸 이상	16.388*** (9.330)	28.099*** (16.488)	22.236** (21.011)
지역(기준=그 외)			
수도권	0.956 (0.459)	1.144 (0.563)	1.858 (1.139)
광역시	1.078 (0.550)	1.460 (0.760)	0.966 (0.649)
상수	0.009*** (0.012)	0.005*** (0.007)	0.000*** (0.000)
<i>N</i>		724	
Chi-square(<i>df</i>)		339.78***	
Pseudo <i>R</i> ²		0.20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 고교졸업 이후의 생애과정유형에 대한 평균한계확률(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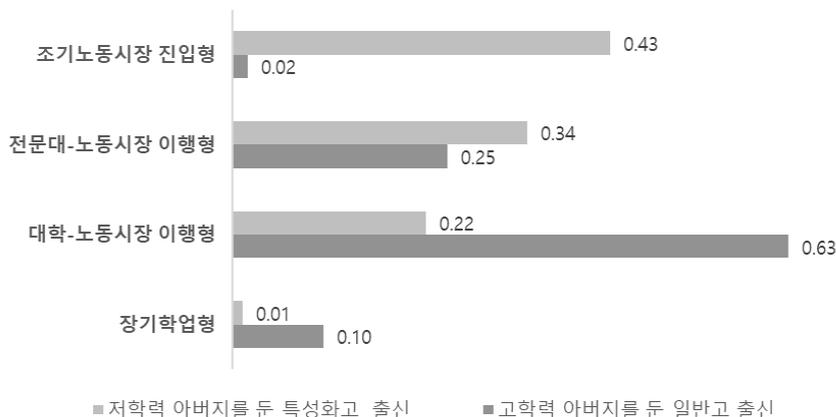
변수	조기노동시장 진입형	전문대-노동시장 이행형	대학-노동시장 이행형	장기학업형
	AME (s.e.)	AME (s.e.)	AME (s.e.)	AME (s.e.)
아버지 최종학력	-0.178** (0.006)	-0.009 (0.009)	0.022* (0.009)	0.004 (0.005)
어머니 최종학력	0.007 (0.006)	-0.010 (0.009)	-0.015 (0.010)	0.018* (0.006)
가구원당 연평균소득	0.002 (0.003)	-0.007 (0.006)	0.001 (0.006)	0.003 (0.003)
고교 계열 (기준=특성화고)	-0.162*** (0.036)	-0.088 (0.051)	.0183*** (0.051)	0.007** (0.022)
고교 성적(기준=하위권)				
중위권	-0.067 (0.038)	0.015 (0.058)	0.018 (0.061)	0.035 (0.033)
상위권	-0.141 (0.036)	-0.031 (0.057)	0.133* (0.061)	0.039 (0.032)
희망 최종학력(기준=고졸)				
전문대졸	-0.248** (0.073)	0.430*** (0.088)	-0.102 (0.097)	-0.079 (0.053)
대졸 이상	-0.304*** (0.073)	0.048 (0.073)	0.240** (0.085)	0.015 (0.054)
지역(기준=그 외)				
수도권	-0.002 (0.025)	-0.038 (0.046)	-0.001 (0.048)	0.042 (0.028)
광역시	-0.001 (0.026)	-0.039 (0.048)	0.067 (0.049)	-0.019 (0.027)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조기노동시장진입형에 해당되는 청년여성들의 아버지는 저학력자인데 반해 대학-노동시장이행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학력 자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기학업형에 해당되는 청년여성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고

학력자일수록 자신의 딸은 계속해서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고, 김창환(202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과거 성별에 따른 학력차별이 존재하던 시기에 여성들의 대학원 진학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고학력 어머니를 둔 청년여성에게 이러한 기회가 더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탈표준화된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청년여성의 초기청년기 삶의 궤적에서 가족배경보다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출신고교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출신에 비해 일반계고 출신의 청년여성들이 조기노동시장진입형에 속할 확률은 16.2%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노동시장 이행형에 속할 확률은 18.3% 높았고 장기학업형에 속할 확률도 0.7% 높았다. 결국 출신고교에 따라 초기청년기의 삶의 궤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도 선취업 후진학이 가능한 제도들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진학의 길로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문상균·최재성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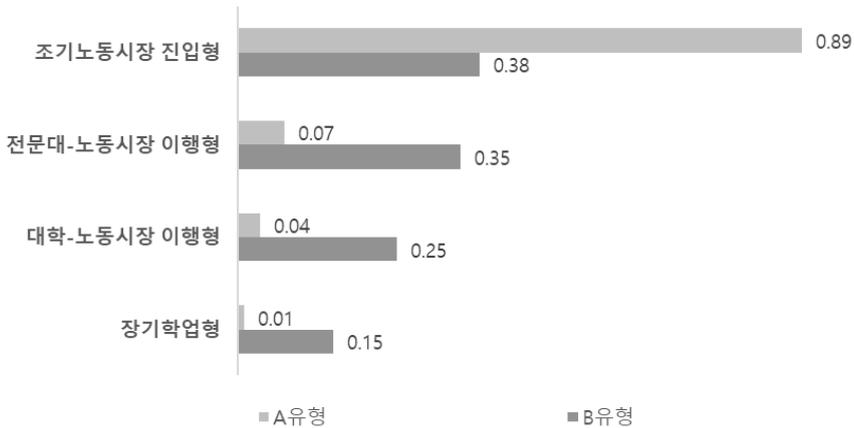
<그림 2>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여성의 출신고교별 생애과정유형에 속할 확률

주: 다른 변수들은 평균으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가족배경과 출신고교가 달랐을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이면서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여성과 아버지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이면서 일반고 출신의 청년여성이 4가지 생애과정유형에 속할 확률을 추정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저학력 아버지를 둔 특성화고 출신 청년여성의 경우에 초기노동시장진입형에 속할 확률이 43%인데 반해,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은 34%, 대학-노동시장이행형은 22%, 그리고 장기학업형은 겨우 1%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고학력 아버지를 둔 일반고 출신의 청년여성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초기노동시장진입형에 속할 확률이 2%로 매우 낮았으며, 대학-노동시장이행형에 속할 확률은 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기학업형에 속할 확률에 있어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학업형에 속할 확률에 있어서도 출신고교의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진로포부 역시 청년여성의 초기청년기의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고교시절에 최종 희망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설정했을 경우 초기노동시장진입형에 속할 확률은 30.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노동시장이행형에 속할 확률은 13.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3> 희망 최종학력별 생애과정유형에 속할 확률

- 주: 1) A형: 저학력 아버지를 둔 특성화고 출신 청년여성인면서 고교졸업만 희망한 경우.
- 2) B형: 저학력 아버지를 둔 특성화고 출신 청년여성인면서 대졸 이상을 희망한 경우.
- 3) 다른 변수들은 평균으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청년여성의 초기생애에 있어 진로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곤란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진로포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이면서 청년여성도 특성화고 출신

이라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A형은 고교 졸업만을 희망한 경우이고, B형은 대학 이상을 꿈꾼 경우이다. 그 결과를 보면 진로포부의 중요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애과정유형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자 했던 여성들은 불리한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조기노동시장진입형에 속할 확률이 89%나 되었다. 반면, 동일하게 불리한 환경 내에서도 대학 이상의 학력을 희망했을 경우에는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에 속할 확률이 35%나 되었고, 대학-노동시장이행형에 속할 확률도 25%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1~13차년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여성의 생애과정을 유형화하고, 이질적 삶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배열분석을 통해 생애과정이 ‘조기노동시장진입형’, ‘전문대-노동시장이행형’, ‘4년제-노동시장이행형’, ‘장기학업형’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과정 유형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여성들이 속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년여성의 가족배경 특히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일정 부분 누적적 우위모형이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청년여성의 생애초기에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출신고교를 청년여성의 삶에 있어 상대적인 이점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림 2>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 역시 누적적 우위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보다도 생애발달 동기이론이나 진로발달이론과 연결되는 진로포부가 청년여성의 초기생애과정 유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조기노동시장진입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이 높은 진로포부를 가질 경우 또 다른 유형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그림 3>에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조기노동시장진입형이 좋지 않은 생애과정이나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가족배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여성들 다수가 선택하는 생애경로임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누적적 우위 모형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가족배경이 불리함으로 작용하여 조기노동시장진입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청년여성이 가지고 있는 진로포부를 통해 그러한 불리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비록 그동안 다루이지 않았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초기청년기의 생애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는 초기청년기에 초점을 두고, 어쩌면 보다 다양한 삶의 과정이 펼쳐지는 후기청년기를 고려하지 못해 새로운 생애과정 유형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생애과정 유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상태값을 ‘노동’, ‘학업’, ‘모두 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노동’은 노동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 여부만을 고려하였다. 같은 ‘노동’ 상태이더라도 노동의 질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배열분석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Hidden Markov 모형과 결합한 최신의 방법론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Helske, Helske, & Eerola 2018).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비교대상이 되는 청년남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년남성의 초기 생애과정을 청년여성과 비교했다면 청년여성만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남성의 경우 군입대라는 중요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는데, 그것을 20대 초기에 경험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20대 중반으로 늘어나는 등 사건 경험 시기가 다양하여 1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추출되는 배열의 수가 많아 청년여성과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였다. 이에 분석기간을 30대 후반까지 연장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순희. 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87(2): 317-347.

- 김창환. 2022.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 《한국사회학》 56(1): 151-201.
- 남재욱. 2021.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8(1): 133-160.
- 문상균·최재성. 2017. “특성화고 출신 고졸 여성의 선취업 후진학 선택에 관한 분석.” 《여성연구》 94(3): 79-108.
- 류지은·김성남·안재영·강서울. 2022. 《직업계고 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경숙·김영혜. 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서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63-90.
- 박미희·홍백희.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용두·이기학. 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 모형 검증: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63-282.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 1960~1980년대 청년 코호트의 노동 궤적(work trajectory)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금선·이혜림. 2023.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0(2): 127-156.
- 신혜숙·민병철. 2023. “고교유형에 따른 대졸자 특성 및 취업성과 분석: 특목고 및 자사고, 일반고 그리고 특성화고의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41(3): 27-48.
- 오유진·김교성. 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35.
- 이병훈·김은경·김한나. 2023. “청년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관한 연구: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0(3): 141-166.
- 이수용·이은수·홍세희. 2016. “청년기 진로발달 변화형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원 성장 혼합 모형의 적용.” 《직업능력개발연구》 19(3): 137-162.
-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KLSI Issue Paper》 2021-8호.
- 임용수. 1992. “진로사회화의 개념 구성과 교육사회학적 논의.” 《교육학연구》 30(3): 257-273.
- 장정규·최윤정. 2023.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과 목표추구 동기조절전략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교육혁신연구》 33(1): 319-341.
- 최재혁·홍혜영. 2016. “진로포부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9(2): 129-143.

- Abbott, A. and A. Tsay. 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1): 3-33.
- Arnett, J. 2007. "Suffering, Selfish, Slackers? Myths and Reality about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23-29.
- Benson, J.E. and G.H. Elder Jr. 2011. "Young Adult Identities and Their Pathways: A Developmental and Life Course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646-1657.
- Bernardi, F. 2014. "Compensatory Advantage as a Mechanism of Educational Inequality: A Regression Discontinuity Based on Month of Birth." *Sociology of Education* 87(2): 74-88.
- Bozick, R. and S. DeLuca. 2005. "Better Late Than Never? Delayed Enrollment in the High School to College Transition." *Social Forces* 84(1): 531-554.
- Cornwell, B. 2015. *Social Sequenc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Prete, T.A. and G.M. Eirich. 2006. "Cumulative Advantage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 Heckhausen, J., C. Wrosch, and R. Schulz. 2010. "A Motivational Theory of Life-Span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17(1): 32-60.
- Heglum, M.A., 2024. "Transformed 'Postmodern' Life Courses? Continuity and Change in Young Adults' Labour Market Trajectories in Norwa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40(3): 417-422.
- Helske, S., J. Helske, and M. Eerola. 2018. "Combining Sequence Analysis and Hidden Markov Models in the Analysis of Complex Life Sequence Data" in G. Ritschard and M. Studer (Eds.). *Sequence Analysis and Related Approaches: Innovative Methods and Applications*. Springer.
- Komp-Leukkunen, K. 2019. "Capturing the Diversity of Working Age Life-Courses: A European Perspective on Cohorts Born before 1945." *PLoS One*, 14, e0212400.
- Pollock G. 2007. "Holistic Trajectories: A Study of Combined Employment, Housing, and Family Careers Using Multiple Sequence Analy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0:167-83.
- Settersten, R.A. and B. Ray. 2010. "What's Going on with Young People Today? The Long and Twisted Path to Adulthood." *Future Child* 20(1): 19-41.
- Shanahan, M.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67-

692.

Williams, R. 2012. "Using the Margins Command to Estimate and Interpret Adjusted Predictions and Marginal Effects." *The Stata Journal* 12(2): 308-331.

Rothwell, A., I. Herbert, and I. & F. Rothwell. 2008. "Self-Perceived Employability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12.

Widmer, E.D. and G. Ritschard. 2009. "The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Are Men and Women Equal?"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4(1-2): 28-39.

<접수 2025.04.28; 수정 2025.05.08; 게재확정 2025.05.25>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Diverse Trajectories in Early Adulthood among Young Women

Gaeun Shim

(University of Seoul)

In chol Shin

(University of Seoul)

Studies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lives of youth through a life course approach have been consistently conducted. However, these studies often still treat youth as a homogeneous group or assume a linear life path of university-employment. While there's a growing trend of young people creating de-standardized life trajectories that deviate from socially expected standardized lives, research on this phenomenon remains limited. During early adulthood,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life trajectories can diverge based on individual aspirations. However, factors like family background and the high school they graduated from can constrain youth's choices. These constraints may be particularly pronounced for female youth in the context of Korean specific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ssify into various types the early life courses of young women, a group largely underrepresented in youth research, and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diverse life trajectories.

Key words: early adulthood, life course approach, sequence analysis, Korean Youth Panel Survey